

가톨릭간호사협회 | 가톨릭약사회

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회 피정 개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루가 15, 11-32)’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박혜자)는 전체 이사회 및 피정을 전국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부터 9월 2일 까지 1박 2일간 의정부 소재 한마음수련원에서 서울대교구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버지께 돌아가리라(루가 15, 11-32)’는 주제로 열린 피정에는, 가톨릭간호사들 간의 친교를 다지고 신앙 증진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첫째 날, 특강을 맡은 임병현 신부(가톨릭 대학교 총장)는 “나눔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면서 “돌아온 탕지를 가슴에 안은 예수님에게로 끝까지 가서 품에 안겼을 때 하느님의 자비, 용서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규식 신부(한마음 수련원 부원장)의 주제로 찬미의 노래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하루를 열며 자연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봉헌하며 떼제기도를 올렸다.

김운회 주교(서울대교구), 이승찬 신부(서울대교구 지도 신부), 박규식 신부, 신영철 신부(광주대교구)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피정에 참여한 회원들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은총을 이웃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생각하며 자비로운 하느님, 평화 그리고 나눔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다.



가톨릭약사회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 토마스모어)는 2007년도 정기총회, 미사 및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0일(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 까지 강남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최영식신부의 미사집전과 차동엽신부의 가톨릭 신자 약사들의 신앙과 정체성에 관련된 특강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창립된 지 24주년이 되는 가톨릭약사회는 2004년 10월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었으며, 그동안 20여회의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과 지원, 2회의 북한 결핵환자 어린이 돕기, 2회의 아프리카 난민구호 사업 등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성가복지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주 투약봉사와 지원 그리고 라파엘클리닉에서도 매주 외국인근로자 진료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